

새로 나온 詩集

海望洞일기

강형철 지음

80년대 주목받는 신예시인 중의 한 사람인 저자의 처녀시집. 오늘의 농촌현실과 반외세민족자주화문제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소극적인 소시민적 삶에서 역사적 현장에 발딛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창도 / B6 / 144면 / 2,000원

들풀이 되어라

인병선 지음

1987년 자유실천문인협회의 기관지 「민족문학」 5월호에 「이러다 우리 새끼들 다 죽이겠네」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한 시인의 첫시집. 시인 신동엽의 미망인이며, 월북한 농업경제학자 인정식의 딸이고, 노동운동권에 뛰어들어 청년의 어머니이기도 한 그의 시는, 그러나 혐이나 인고 따위에 오갈들려 있지 않고 당당하고 넉넉하다.

풀빛 / A5 / 137면 / 2,500원

어떤 길에 관한 기억

장석주 지음

이른바 '비극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일관된 시세계를 추구해온 시인의 다섯번째 신작시집. 시인은 이 시집에서 허무를 질료로 삼아 삶의 의미화를 빚어내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그가 현실을 감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청하 / B6 / 103면 / 2,000원

사론의 들꽃

李龍道 지음

독립운동에 앞장섰다가 다섯차례나 옥고를 치렀던 시인의 유고시집. 시인은 1928년 이후 1933년까지 5년간 부흥운동의 선봉을 일으키면서 130여편에 이르는 시를 남기고 1933년 10월 2일 나이 33세로 별세했다. 그의 생명과 신앙에 관한 시세계를 엄숙하게 받아들여게 한다.

한국문연 / B6 / 151면 / 2,000원

그리운 잠

朴燦 지음

1983년 「시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두번째 시집. 대부분 이야기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주목을 끈다. 주로 개인적 존재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갈등을 노래하고 있는데, 첫시집 「수도꼭 이야기」(1985)에서보다 좀더 침해화되었으면서도 역설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오늘의 젊은 시인들」 시리즈의 일곱번째 작품집.

동지 / B6 / 131면 / 2,000원

지상의 한 사람

권달웅 지음

시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일관되게 겸허하고 공손한 자세를 유지해 온 시인의 네번째 시집. 사소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미를 깨끗한 시어로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시로 들어간 꽃과 나무와 풀과 새들은 이미 꽃이면서 꽃만은 아니고, 나무이면서 나무만은 아니며, 풀과 새이면서 풀과 새만은 아닌 삶과 자연의 원리가 된다.

나남 / B6 / 120면 / 2,000원

황홀한 초록빛

성찬경 지음

가톨릭신자인 시인의 믿음을 주제로 한 시들을 묶은 시집. 깨끗한 언어를 통해 구체적 신앙의 실천과 체험을 정직하게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선부른 기교를 부린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시인의 인품이나 시의 凡然이 독자들에게 신앙적으로나 시적으로 친근감을 준다.

성바오로출판사 / A5 / 287면 / 2,800원

유채꽃 한아름 안아들고

김명식 지음

제주도 4·3사건을 민족의식이 일으킨 민중항쟁으로 본 서사시집.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4·3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한다. 죽인 자는 누구였으며 죽은 자는 누구였는가, 그리고 죽이고 죽게 조종한 장본인은 누구였는지 민족적 관심 속에서 토로한다. 그리하여 올바른 통일운동은 반외세의식에서부터 시작됨을 역설하고 있다.

동광출판사 / B6 / 180면 / 2,500원

우리들의 강

정공량 지음

1983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조가 당선되어 등단한 시인의 첫번째 시집. 현재 '80년대 시조동인' 및 '오늘의 시조학회 동인'으로 활동

하고 있는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맑은 언어와 사랑이 숨쉬는 순결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1부는 시대상황과 현실을 조명하는 시, 2부는 이미지 위주의 시, 3부는 서정 위주의 시, 4부는 삶과 생활 속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청학 / A5 / 193면 / 2,000원

겨울 水營里에서

金禹泳 지음

비·눈물·술·강·바다·안개와 같은 물의 이미지들이 어우러진 시집. 시인이 즐겨 채택하고 있는 비와 눈물과 강은 비가 자연의 눈물이고, 강이 대지의 눈물이라는 비유적 승화로 감안된다. 또한 그리움이나 이별, 아픔이나 회한까지도 눈물의 등가물일 뿐만 아니라 '술'이라는 복합성의 물로 걸집되어 시작의 모티브가 되고 있다.

청학 / B6 / 125면 / 2,000원

훗날 어느날에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251인의 시를 모아 놓은 사화집. 가영식의 「解士記」로부터 황인태의 「終末」까지 각 시인들의 다양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특히 김용오의 「화가 李仲燮」은 꿈속에서 본화가 이중섭의 奇行에 대해 독특한 문체로 코믹하게 이야기하여 주목을 끈다.

뿌리 / B6 / 339면 / 4,300원

금강

신동엽

작고한 신동엽 시인의 서사시 「금강」을 새로 펴냈다. 이 서사시는 동학운동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史實들을, 다시 말해 몸소 겪은 사람들이 '조심조심 이야기'하여 전해져 온 금강의 역사를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도히 흘러가는 금강은 "그 이야기의 씨들은 떡잎이 솟고 가지가 갈라져 어느 가을 무성하게 꽃피리라"고 예언한다.

창작과비평사 / A5 / 255면 / 3,200원

사랑의 무기

김남주 지음

79년에서 88년까지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중생활을 하였으며 첫시집 「鐵魂歌」를 비롯하여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의 시집을 냈던 시인의 시선집. 노동자·농민에 대한 애정과 통일에 대한 염원을

끊임없이 노래했던 시인의 초기작에서 최근작까지 일목요연하게 묶었다.

창작과비평사 / A5 / 225면 / 2,500원

기도하는 나무

김수복

1975년 「한국문학」을 통해 등단, 현재 단국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인 시인의 믿음을 주제로 한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믿음의 시선' 시리즈의 21번째 작품집으로 절망 속에서도 끝끝내 일어서고야 마는 의지를 돈독한 믿음의 언어로 극복하고 있다.

종로서적 / B6 / 118면 / 2,000원

새벽에 쓰는 시

백남천 지음

남성적인 건강성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는 시인의 힘찬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집. 초라한 목로, 이 시대의 어두운 밤, 썰어진 두부의 좌절 등 고통스런 삶의 밑바닥으로부터 우렁찬 '새벽열차'소리를 끌어내고 있다. 적절한 상징과 풍자가 뒤섞여 쏟아지는 '사랑과 그리움의 아리랑'은 우리들의 삶에 건강한 불씨를 제공할 것이다.

청하 / B6 / 151면 / 2,000원

우리, 노동자

김정환 지음

주로 '공동체적인 사랑'을 노래해 왔던 시인의 신작시집. 전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묘비명, 기타」에는 분신자살 등으로 죽어간 노동자·학생들에 대한 추모시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2부 「도둑고양이의 죽음」과 제3부 「그날 그대, 또한 이름없는 자여」는 시인의 세계관과 과학적 전망을 보여주는 장시들이다.

동광출판사 / A5 / 112면 / 2,000원

외딴 별에서

임문혁 지음

198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번째 시집. 물에 대한 상상력이 돋보이며, 나무를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도 흥미롭다. 오늘의 현실에 대해 은유적으로 풍자한 시들도 눈에 띈다. 특히 「공중전화에게」와 「재떨이」는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대표적인 시들이다.

나남 / B6 / 120면 / 2,000원